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 5:9)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사순절 제4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 예배로의 부름	다함께
◆ 경배의 찬송	27. 빛나고 높은 보좌와
◆ 공동기도	다함께

참 좋으신 하나님, 춘분이 지나 날은 따뜻하지만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그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그리웁습니다. 풍량이 이는 바다 위를 물결처럼 걸으셨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물 속에 빠진 채 허우적거리는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을 공경함이 우리 생의 뿌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 생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육신을 입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도 배우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사58:11
◆ 교 독 문	20. 시편 91 편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대표기도	I. 임보람 선생 II. 윤석철 장로
사도신경	다함께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359. 예수가 함께 계시니
성경봉독	I. 막 8:14-26
	II. 대하19:4-7
	유경순 집사
찬 양	성가대
말 씬	I. 무엇을 담고 있는가?
	II. 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김재홍 목사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514. 누가 주를 따라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낮습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인간의 강함보다 위대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치며 사십시오.

다 함 께 : 주님, 우리 발이 어리석은 정욕의 샘터로 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랑에 무능력자가 되어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역사 변혁의 누룩으로 삼아주십시오. 우리가 가서 머무는 곳마다 주님의 거룩하심과 화평함이 온전히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에스겔 통독강좌(19)	로마서강해(71)
기도 : 최중원 권사/이응구 집사(28)	기도 : 백혜숙 권사/최인환 선생(31)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황경순 집사 김재흥 목사	인도자 김종훈 집사

3월	영접위원	구성실	방문성	홍순구	최철수	이소순	고숙이
	헌금위원	조병무	이인웅	김인걸	유영남	임정자	안정숙

예수의 얼굴

사람은 누구나 얼굴이 둘 있다. 하나는 눈에 보이거나 손에 만져지지 않는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얼굴이다. 사람들은 대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얼굴만 얼굴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상(實相)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얼굴에 있다. 보이는 얼굴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얼굴의 허상(虛像)인 것이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가르치신 분이 예수다. 누구나 그렇듯이 예수도 두 얼굴을 지닌 사람이었다. 몸이 둘이니 얼굴도 둘일 수밖에 없다. 하나는, ‘나자렛 사람 예수’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몸의, 눈에 보이는 얼굴이었고, 다른 하나는 당신 입으로 말씀하신 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얼굴이었다. 이 두 얼굴 가운데 어느 얼굴이 실물이고 어느 얼굴이 그림자인가? 물어볼 것도 없이 앞의 얼굴(나자렛 예수의 얼굴)은 뒤의 얼굴(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예수의 얼굴)을 비쳐주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말은 천지창조보다 먼저 있었다는 말과 같다. 삼위일체 교리를 말할 것 없이, 시간과 공간의 울타리 너머에 계신 영원존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33년이라는 짧은 세월 지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셨던 것이다.

한때, 예수의 얼굴 흔적이 남아 있는 수의(壽衣) 자락을 발견했다 하여 화제가 된 일이 있었다.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과학기술로 밝혀본다는 얘기까지 들은 기억이 나는데 결과가 어찌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사실 처음부터 별로 관심이 없었다. 내가 보기에 그것이 진짜든 가짜든, 결국은 그림자의 그림자를 가지고 그림자들이 허풍을 떨어 보는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한 화가의 붓끝에서 고백적으로 살아나는 예수의 얼굴이 더 실상에 가까울 수 있다.

오늘, 나자렛 예수의 얼굴을 눈으로 보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 한 때 그 얼굴을 보고 만지고 하던 제자들의 얼굴도 모두 사라졌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예수의 얼굴이란 모두가 마음이 작용하여 만들어낸 그림이나 조각작품일 뿐이다. 그러니 그 가운데 하나를 가리켜 저것이 예수의 진짜 얼굴이라고 말한다는 건 터무니없는 노릇이다. 동양 사람으로서 앵글로색슨이나 흑인의 얼굴로 그려진 예수한테 호감이 가지 않

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보 화백의 갓 쓰고 두루마기 입은 예수가 진짜 예수라고 말한다면 역시 억지가 아닐 수 없다.

나자렛 사람 예수는 왜 지상에 그 모습을 나타내었던가? 그 얼굴로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일까?

낡은 앨범을 펼쳐놓고 내 어렸을 적 모습을 들여다본다. 중학생 시절, 구겨진 학생 모자를 쓰고 먼 산을 바라보며 처마 아래 서 있는 옆얼굴이다. 눈매가 날카롭고 입술을 반쯤 벌렸다. 그 사진은 그때 그렇게 박힌 뒤로 지금까지 퇴색은 되었지만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눈매가 부드러워지거나 구겨진 학생모자를 벗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사진은 그럴 수가 없다. 실물이 아니라 찍혀진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내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는 내 얼굴과 사진에 박혀 있는 내 얼굴은 어떻게 다른가? 사진 속에서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중학생 이 아무개의 얼굴과 거울 속에서 제 이마를 바라보고 있는 중늙은이 이 아무개의 얼굴을 과연 다른 것인가? 모양이야 다르게 보이지만,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이 아무개의 얼굴을 순간 포착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점에서는 조금도 다른 얼굴이 아니다.

그림자는 실물을 가리킨다. 그림자를 밟지 않고서는 누구도 실물에 닿을 수 없다. 그러나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에 눈길이 머물러 있는 한 실물을 볼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그동안 너희와 함께 있는 지 오랜데 어찌하여 내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제자에게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고자, 우리와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통해서 영원한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저 벽에 걸려있는 루오의 예수 얼굴을 통해서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현주, 『그러므로, 저는 당신입니다』 중에서)

참나무

네 이름이 참나무인 것은
미루나무처럼 곧거나
목련처럼 소담스럽기 때문이 아니다
톡톡 터진 껍질 가득
앞발 날카로운 집게벌레와
독침 벌름거리는 왕통이를 다스리기 때문도 아니다
수많은 나무 중 네가 참씨인 것은
단단한 성깔 아꼈다가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손잡이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팽이나 도끼자루 멧돌 손잡이
해마다 터지는 새암배미 참말뚝까지
땀흘려 일하는 나무이기 때문이다
땡강땡강 잘려 버섯까지 키우는 그대,
아직도 옆구리 퍼렇게 매질 사납지만
조그만 이마를 향해
온몸으로 사랑해 줄 상수리 단단하다
—이정록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이용한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한글 영수기 ◇

십일조헌금:

윤정덕 구성실 구명자 이한림 김명희 임보람 김정길 최숙화 김순복
전영웅 배상순 윤수진 이정규 이인섭 이은숙 윤미경 고사일 최영선
박두석 이건화 박재실 강인식 김정숙

월정헌금:

조항범 오현정 백요현 김홍기 김명순 박석희 조항미 정두리 송의섭
이경남 조동길 배부례 박상규

감사헌금:

이인섭 하진솔 권 순 윤정화 김철수 유영남 김용길 최영혜 김흥순
전찬용 강혜실 신윤정 김지호 박순성 정은영 김재흥 최희영 박숙화
윤 윤 서정순 영혜영 김지윤 무명

생일감사헌금: 정완수 김혜진 윤수진 이지훈 신영재

◇ 속 회 보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하 재 두	정 두 리
베들레헴	윤 정 덕	정 경 례	김 영 한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이 춘 희	임 정 자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김 명 순	박 경 원
갈 린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문 금 석	박 애 순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흥 재	임 창 선	박 흥 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이 인 섭	송 의 섭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권 미 정	김 재 광
에 베 소	이 순 정	한 선 희	오 복 순	장 혜 숙
빌 립 보	최 종 원	이 형 숙	최 종 원	이 정 은
가 버 나 움	구 성 실	안 흥 숙	구 명 자	이 봉 옥
나 사 렷	백 혜 숙	정 옥 영	정 영 선	김 시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송 양 진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방 극 숙	김 성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최 영 혜	조 항 미
두 란 노	안 종 일	정 현 주	교 회	교 회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월례회** : 2부 예배 후 각 선교회의 월례회가 있습니다.
2. **새벽기도회** :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22일)부터 시작됩니다. 삶의 시간을 재조정해서 영적으로 성숙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3. **세례·입교자교육** : 세례 입교를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비교육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4. **관리부회의** : 예배 후 1시부터 관리부 모임이 있습니다.
5. **아름다운 원로모임** : 25일(목) 오전 10시 30분에 교회 친교실에서 모입니다. 소중한 사귄의 시간에 기쁘게 동참해주시시오.
6. **별세** : 이부방 권사님께서 14일에 별세하시어 장례를 엄수했습니다.
7. **남선교회 계삭회** : 23일(화) 오후 6시 효창교회에서 있습니다.
8. **신앙실천** : 찬송은 정념을 가라앉혀 주며, 몸의 무절제한 충동을 억제해 줍니다. 하루에 몇 곡씩이라도 마음을 다하여 찬송을 부르십시오.

*헌화 - 정채연 (첫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